

[전체공지]

※ [10 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
 '특별 전교의 달'은 2 년 전 전교 주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로 마련됐고,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 성월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John J. Snyder 주교님 선종]

St. Augustine 교구에서 20 년 이상 사목을 해 주신 John J. Snyder 주교님께서 선종 9 월 27 일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에 선종 하셨습니다. (향년 93 세). 주교님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객슨빌]

- 10 월, 11 월 미사 전례 봉사자 일정표가 게시판에 공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봉사날짜 변경문의는 부총무님 스테파니아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 매일미사 정기구독 안내: 매일미사책 주문 받습니다. 전례부 최 마리아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게인즈빌]

- 오늘 미사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 돌아오는 금요일(10 월 11 일) 평일미사가 있습니다. 7 시 Q&A, 7 시 30 분 미사 시작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59	\$200	-	-	\$359
객슨빌	\$227	\$430	-	-	\$657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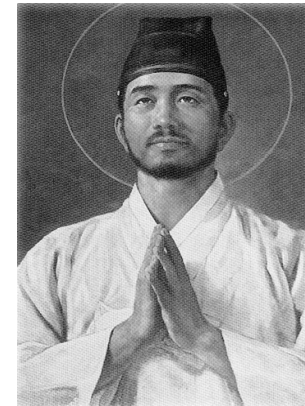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객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객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오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에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딥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작은 믿음도 돌무화과나무처럼 견고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명령받은 모든 힘든 일을 수행하고 나서도,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종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권리나 보상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했다 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승복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겨자씨만큼 작고 깨지기 쉬운 믿음이라도,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오고, 삶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성근 사바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7 주일

[제 1 독서] 하바쿵 예언서 1,2-3; 2,2-4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화답송] 시편 95(94),1-2.6-7 ㄱㄴㄷ.7 ㄹ-9 (㉟7 ㄹ과 8 ㄴ)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서] 티모테오 2 서 1,6-8.13-14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7,5-10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10/5)	고승희 엘리사벳	천창준 레오	천하일 미카엘	-
	잭슨빌 (10/6)	백경윤 아네스	손활란 안나	최차숙 마리아	함동진 안드레아 함두순 베로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10/12)	임윤미 플로라	백창호 그레고리오	이수미 로사	-
	잭슨빌 (10/13)	윤미임 데레사	렉시 베로니카	김 스테파니아	이상미 미리암 이 글라라

<미 사 성 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220	79	14	149
잭슨빌	21	218	178	271